

## II. 산업동향

### 1. 산업 개황

#### 가. 산업구조 및 생산동향

<표 II-1> 동유럽 4개국의 주요 산업현황 지표 비교  
(2006년 기준)

(단위: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산업생산/GDP				
농림수산업	11.0	3.4	2.7	9.1
광 공 업	25.1	31.5	32.6	34.9
서 비 스 업	63.9	65.1	64.7	56.0
산업생산증가율	11.3	10.2	9.7	11.4

자료: EIU, *Country Report* 및 *Country Profile*, 2008.

#### □ 산업구조

- 폴란드의 GDP 대비 산업별 생산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 4.0%, 광공업 31.3%, 서비스업 64.7%를 차지한 것으로 타남.
- 폴란드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제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상태였음. 당시 폴란

드는 석탄, 동, 유황의 생산기지로 유명하였으나 소비재 산업은 발달하지 못하였음.

- 또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농업부문의 사유화가 추진되었으나 농업은 소농(평균 농가규모: 8.6ha) 위주로 비교열위 산업임.
  - 산업별 고용비중에서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아직도 폴란드 노동력의 17% 수준을 차지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EU 가입 이후 농업인구의 급감현상은 불가피한 상황임.
  - 주요 농산물은 라이보리, 밀, 귀리, 감자 등이며, 농지면적은 15만 km<sup>2</sup>로 전체 국토면적의 48%를 차지함.
-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의 산업구조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업 및 제조업의 GDP 대비 생산비중이 크게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은 두드러지면서 선진 시장경제의 전형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농업부문은 체제전환 이후 정부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고, 석탄·철강 등의 중공업에 집중화된 폴란드 산업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진적인 사회변혁 없이 중공업 분야의 점진적인 구조조정으로 농업부문과 같은 타격을 받지 않았음.
- EU가 폴란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낙후지역의 인프라 개발투자를 위하여 구조조정기금 및 결속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종사자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고용불안 및 소득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 실제로, 전국적인 농민시위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어 폴란드 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제조업의 성장

<표 II-2>

제조업 생산증가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평균	1.2	10.2	14.6	3.9	13.4
기계(설비)	1.4	12.8	16.6	20.6	13.8
사무기기(컴퓨터)	44.5	21.8	△36.5	79.9	..
전기기계(기구)	0.9	23.0	9.2	7.4	13.2
통신장비(라디오,TV)	11.5	△8.5	41.4	9.9	45.3
자동차	3.4	30.3	55.7	4.4	22.2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7.

-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2004년에는 수출 호조와 소비지출의 꾸준한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산업생산증가율이 전년 대비 12.3%에 달하면서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자동차 및 가구산업 이외에도 건설자재 생산실적이 급증하면서 경기상승을 주도함.
- 노동생산성 상승은 2001년 이후 폴란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수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제조업 가운데 정부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 방위, 조선(2002년 Szczecin조선소 재국유화), 정유 및 일부 화학 등이지만, 2007년 기준으로 민간부문이 제조업 매출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6년 기준으로 제조업 매출실적의 16%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산업에서는 식품가공 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외국인투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식품가공 분야는 폴란드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함.
- 2006년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평균 13.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통신장비(라디오,TV) 및 자동차 산업(제조업 매출실적의 9%)의 폭발적인 생산증가에 기인함.
- 폴란드는 자동차부품 공장 설립 등을 통하여 유럽내 자동차 제조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EU 가입 이후 수입 중고차 유입증대로 신규 자동차의 자국내 판매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수출 증대로 자동차 매출 부진을 만회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소강국면(2002년 자동차생산량: 288,000대로 감소)을 나타내다가 2003년부터 회복되어 승용차 생산이 증가추세를 보임.
- 서부유럽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Fiat가 수년간 폴란드 남서지역의 Bielsko-Biala를 중심으로 소형차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으며, Skoda(독일 Volkswagen의 자회사)와 Renault는 폴란드내 생산기지는 없으나 내수시장에서 양호한 매출실적을 거두고 있음. Opel도 Katowice 지역의 Silesia, Gliwice 특별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 SEZ)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치함.

## □ 산업생산 추이

- 폴란드의 EU 가입 직전년도인 2003년 말 기준으로 폴란드의 제조업 생산증가는 식음료(광공업 전체 생산비중: 18.9%), 자동차(6.5%), 화학(6.2%) 및 금속(5.6%) 제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2004년에는 수출 호조와 소비지출의 꾸준한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산업생산증가율이 전년 대비 12.3%에 달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견인함.
- EU 가입 직후인 2005년에는 경제성장 및 산업생산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또는 자본투자의 지속적 증대로 특히 제조업, 광업 및 공공사업의 산업생산 증가가 예년 수준을 유지함.
  - 기계·설비의 생산증가는 연중 18%에 달하면서 제조업(건설제외)내 생산비중도 5%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의료 및 정밀기기 생산은 전년 대비 22%로 최고 성장률을 기록함. 자본재를 생산하는 여타 산업의 생산증가율도 고무적이었는데, EU 가입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식품 및 음료산업의 생산도 전년 대비 5.0% 증가를 기록함.
- 반면, 2005년 중 산업생산이 오히려 감소한 분야에는 식물 및 의류산업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수입제한 철폐조치로 중국 등 저비용 생산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임. 또한, 기초금속 분야는 전년 급증 이후 생산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저하됨.

&lt;표 II-3&gt; EU 가입직후의 산업생산 변화

생산증가율 상위품목	생산증가율 감소품목
① 의료·정밀기기(21.5%),	① 가죽제품(-10.6%)
② 기계·설비(17.9%)	② 코크스·정유제품(-10.5%)
③ 금속제품(10.9%)	③ 의류(-10.3%)
④ 고무·플라스틱 제품(9.1%)	④ 기초금속(-6.7%)
⑤ 목재(8.9%)	
⑥ 전기기계·기구(8.8%)	
⑦ 방송기자재(8.0%)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7.

- 폴란드 산업생산증가율은 2008년 1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생산위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일례로 2008년 4분기 중 EU 역내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면서 폴란드 자동차산업도 급격히 위축되었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출약화, 내수부진으로 폴란드 산업생산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유럽경제권의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산업생산증가율은 연간 기준으로 아직 침체국면에 있음.
- 2009년 1분기에는 건설업을 제외한 광공업 생산증가율이 -11%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특히 금속, 정유 및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4> 광공업 및 건설업 생산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감비율: %)

	2008.1/4	2008.2/4	2008.3/4	2008.4/4	2009.1/4
광공업 평균	8.3	7.4	2.0	-6.1	-10.6
제조업	8.7	8.6	3.0	-5.7	-10.3
광업(채련 포함)	-0.9	5.1	3.8	-4.5	-14.6
공공서비스	12.1	1.9	-5.0	-11.3	-13.2
건설업	15.8	18.7	8.5	2.7	3.1

자료: EIU, Country Report: Poland, May 2009.

## 나. 인프라스트럭처

### □ 교통현황

- 폴란드의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상황은 경제성장 확대에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용자들이 불평을 토로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
-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도로 및 철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로-2012 축구경기의 공동유치를 계기로 그 이전에 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관측됨.

&lt;표 II-5&gt;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주요 통계현황

(단위: 백만 톤·명)

	2003	2004	2005	2006	2007
화물운송	1,238.8	1,324.5	1,422.6	1,480.3	1,532.7
철도	241.6	282.9	269.6	291.4	245.3
도로	912.0	956.9	1,079.8	1,113.9	1,213.2
해상	25.4	22.5	9.4	10.0	11.4
운하	8.0	8.7	9.6	9.3	9.8
여객수송	1,112.5	1,085.5	1,046.9	1,024.4	1,004.7
철도	283.4	272.2	258.1	265.3	278.2
도로	822.9	807.3	782.0	751.5	718.3
항공	4.0	4.0	4.6	5.3	6.2

자료: EIU, Country Profile: Poland, September 2008.

## □ 철도

- 폴란드 국영철도(PKP)의 여객수송 서비스는 프랑스 TGV와 같은 고속열차를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비엔나, 프라하 및 베를린 등 유럽 주요도시와 카토비치 및 크라코프 등 폴란드 내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그러나 철도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구조조정 및 추가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EU 집행위원회는 교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폴란드 정부는 국영철도 네트워크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기를 희망함.
- 중부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철도망을 가지고 있지만, 시설이 낙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은 편으로 EU 기금을 통한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임.



## □ 도로

- 열악한 도로망은 폴란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최대 약점의 하나로서 경제발전 및 영업활동의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전체 도로망 길이가 약 42만km에 이르러 유럽 4위 수준이나, 고속도로(약 662km)의 비율이 낮고, 비포장 도로(129천km) 등 낙후된 시설이 많은 점이 것이 큰 결점임.
- 최근 개인 승용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도로망에 대한 개선 압력이 증대함. 예를 들면, 인구 1천명을 기준으로 승용차 보유대수는 1990년 138대에서 2007년에는 380대로 증가함으로써 도로 이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 대비 승용차 보유대수는 서유럽 평균 500대 상회, 체코 401대 등으로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도로혼잡도가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승용차 보유의 증가 여지는 충분함.
- 폴란드의 도로망 사정이 실제로 열악하다는 단면은 도로연장 및 차로 등에서도 잘 나타남. 예를 들면, 총 도로연장은 2000년 358km에서 2007년 662km로 늘어난데 그쳤으며, 주요 대도시간 도로망도 대부분 2차로로 연결되어 있음.
- 도로 서비스 개선 및 건설사업은 최근 폴란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지만 토지 구매, 부정부패 개입 및 투자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난관에 부딪혀 그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2005년 이후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도로건설 분야는 활기를 나타

내었고 EU 기금 투입으로 도로망 개선사업 분야는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폴란드 정부는 Euro 2012(유럽지역 축구 챔피언십) 개최 전 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으로 2013년까지 고속도로 총연장은 5,466km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EU 기금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 내륙수로 및 항만

- 강하천 등 항해 가능한 내륙수로가 3,997Km에 달하여, 모래, 자갈, 비료 등의 운반에 주로 사용됨.
- 폴란드 3대 항구로는 Gdansk, Szczecin-Swinoujscie 및 Gdynia로서 중동지역 원유수입을 위한 유조선, 용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 정박 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양 횡단에 있어서 북서유럽의 항구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하지만 주변 철도편과 연결성이 좋은 편임.
  - 3대 항구의 용적처리물량은 2007년 기준으로 각각 2,120만 톤, 1,870만 톤, 1,750만 톤인 것으로 파악됨.
- EU 결속기금과 유럽지역 개발기금 등으로부터 많은 지원(2007~13년간 4억 4천만 유로)을 받아 인프라 정비사업을 진행 중임.

#### □ 공항

- 최근 저가요금의 항공사가 증가하면서 폴란드 항공 산업도 구조

적 변환이 이뤄졌고 또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항의 수용능력도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음.

- 폴란드 내 최대 공항은 바르샤바에 있는 Okecie-Fryderyk Chopin (OFC) 공항으로 연간 수용능력(이용객 수 기준)은 2006년 120만 명에서 2007년에는 930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유럽과 미주 80여 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초에는 신규 터미널 설치로 연간 수용능력이 1,00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됨.
- 폴란드가 현재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는 OFC 공항의 제3터미널 공사, Modlin 공군기지 시설개선, 주요 도시의 공항시설 확충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주요 도시(바르샤바 제외)의 공항 수용능력은 크라코프 300만 명, 카토비체 200만 명, 그단스크 170만 명 등임.

#### □ 에너지

- 1990년대에는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기초적인 에너지소비량은 1989년 1억 2,600만 톤(원유 기준)에서 2002년에는 8,710만 톤, 2007년에는 9,440만 톤으로 집계됨. 최근에는 경제성장으로 에너지소비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폴란드는 가스 또는 핵연료를 통한 발전능력이 없기 때문에 석탄이 지속적으로 주된 발전 에너지로 사용됨. 발전능력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

하기 위해서는 발전능력을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폴란드 정부는 핵발전소 건설을 고려 중이며 기존의 Ignalina 발전소(EU의 폐쇄 요구)를 대체할 신규 발전소를 리투아니아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을 시사함. 또한, 발전능력이 아직 미흡하지만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EU 기금 투입을 통해 풍력발전소도 일부 건설되었음.
- 폴란드는 경제적 타당성, 환경요인 등의 이유로 석탄생산량을 감소시켜 왔으며, 대신 대부분 수입하는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2006년 기준으로 국내수요의 70%를 충족하려면 고메탄을 천연가스를 10억 m<sup>3</sup> 이상 수입해야 하는 형편이며, 현재 가스수입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의존함.
  - 폴란드 정부는 가스 수입원의 다변화를 위해 노르웨이로부터의 가스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천연액화가스(LNG)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Swinoujscie에 가스터미널 설치도 고려 중임.
- 폴란드의 양대 정유공장은 Plock 지역의 PKN Orlen과 Gdansk 지역의 Lotos Group으로서 사실상 폴란드 국영기업들임.
- 폴란드는 세계 최대의 석탄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광업 및 제련생산은 2006년 기준으로 산업생산의 4.9%(석탄매출: 2.8%)이지만 석탄산업 종사자는 총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석탄생산량은 1988년 1억 9,30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7년에는 8,830만 톤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표 II-6> 폴란드의 주요 부존자원 매장량  
(2006년 기준)

(단위: 백만 톤)

부존자원	매 장 량	부존자원	매 장 량
무 연 탄	42,000	유 황	523
갈 탄	13,700	천 연 가 스	143
동 석	2,000	원 유	24

자료: EIU, Country Profil, 2008

- 또한, 폴란드는 세계 3위의 은 생산국 및 9위의 동 생산국으로서 국영 독점기업인 KGHM Polska Miedz의 2007년 생산량은 각각 1,215톤 및 533,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7> 에너지 관련 주요 통계현황

(단위: 백만 톤, 천 gwh(전기))

	2003	2004	2005	2006	2007
원유수입량	17.4	17.3	17.6	19.5	20.7
석탄생산량	103.0	100.1	97.9	85.2	88.3
전기생산량	151.6	154.1	156.9	161.5	158.7
전기소비량	127.2	130.5	131.2	136.7	-

자료: EIU, Country Profile: Poland, September 2008

## 2. 주요 산업별 생산·매출 현황

### 가. 자동차 산업(Automotive Industry)

<그림 II-1> 폴란드 자동차 산업의 기본개황  
(2007-08년 기준)

총 부가가치: GDP의 6.8%	생산실적: 94만대 (제조업 생산의 11.2%)
고용인구: 12.5만 명 (제조업의 5.7%)	매출실적: 40만대(330억 즈위티) (GDP의 2.8%)
자동차 등록대수: 1,947만대	수출실적: 181억 유로 (수출총액의 20%)

#### □ 자동차 등록현황

- 폴란드 자동차공업협회(Polish Automotive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1,947만 대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승용차가 전체의 7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0년 900만대에서 2006년에는 1,800만대로 두 배 증가하였으나 폴란드 국민은 대부분 중고차를 선호함.
- Samar Institute의 통계발표에 의하면, 신차(승용차 기준) 등록대수는 2007년 중 27만 대(전년 대비 22.8% 증가), 2008년 1-10월 231,575대(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를 기록함.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유럽 전체(EU, EFTA 등)의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8년 1,723만 대로 전년 대비 8%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차종별로는 승용차 1,471.2만 대, 경상용차 203.9만 대, 트럭 43.1만 대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버스(4.5만 대)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중동부유럽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 중에서는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200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신규 승용차 등록대수의 증감비율을 비교하면, 폴란드 9.4%, 체코 8.4%, 루마니아 -8.7%, 헝가리 -9.2% 등으로 파악됨.
- 2007년 연간 승용차 등록대수(125만 대 상회) 중 10년 이상 운행한 중고 승용차가 1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중고차 수입이 증가하면서 승용차 보급률도 상승추세를 보임.
- 승용차 보유비율은 인구 1,000명 기준으로 2003년 300대에서 2006년 351대, 2007년 383대로 상승하여 인구의 30% 이상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sup>15)</sup>

<표 II-8> 차종별·연도별 자동차 등록대수 누계 현황

(단위: 천대, %)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수	증감률
승용차	11,244	11,975	12,339	13,384	14,589	46
트럭·트랙터	2,313	2,392	2,305	2,393	2,520	34
버스	83	83	80	83	88	7
오토바이	845	836	754	784	825	3
계(기타 포함)	15,899	16,701	16,816	18,035	19,47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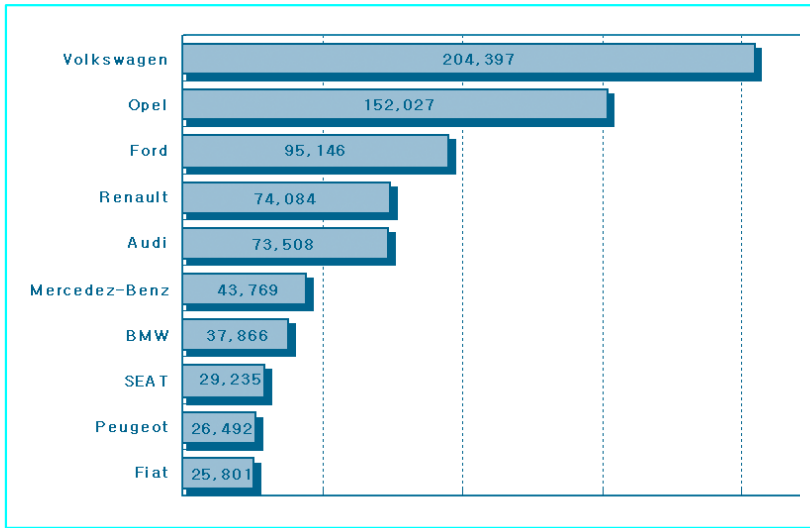
자료 : 폴란드 자동차공업협회

15) 서유럽의 경우 승용차 보급비율은 50% 수준임.

- 폴란드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성향은 소형차를 선호하는데, 2006년 말 등록자동차 기준으로 전체 승용차의 46.8%는 자동차 총중량이 1,399kg 미만이고 총중량 1,400-1,649kg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전체의 33.8%, 1,650-1,899kg은 12.8%, 1,900kg 이상은 6.6%로 조사됨.
- 자동차 실린더 엔진배기량을 기준으로 1.4리터 미만은 승용차의 53.2%, 1.4-2 리터는 41.7%, 2리터 초과는 5.1%에 불과함.
- 2006년 기준으로 1,338만 등록 자동차 중에서 1,174만 대(전체의 87.7%)가 휘발유(petrol)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164만 대)는 경유(diesel)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차 사용인구가 증가함.
- 또한, 자동차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평균 사용연수는 15.1년인데, 6-10년 운행 승용차는 25%, 10년 이상된 승용차도 66.1%(2006년 63.3%)에 달해 폴란드 국민은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9월 말 기준으로 중고차의 비율: 전체의 78% 수준
- 특히, 폴란드에서는 수입 중고차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EU 가입 이후 2007년 말 누계기준으로 중고차 수입실적은 349만 4천 대에 달함. 수입 중고차는 평균 운행기간이 11년이며, 2007년 기준으로 운행기간 4년 미만 수입차는 전체 수입차의 10.1%에 불과하고 10년 이상은 4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2> 업체별 중고차 내수판매 실적 비교  
(2007년 기준)



자료: MF/Samar.

□ 자동차 생산추이

- 자동차산업은 폴란드 경제의 주요 산업(2007년 기준 GDP의 6.8%, 제조업 생산의 11.2%, 고용인구는 12.5만 명으로 제조업의 5.7%, 2008년 기준 수출의 20% 차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유럽 전체에서 버스의 1/7, 승용차의 1/12를 차지함. 즉, 폴란드 현지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서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패턴이 일반적인 경향임.
- 2007년 5대 업체의 승용차 및 경상용차(LCV) 생산실적: 86.9만 대
- 2007년 자동차(부품) 수출실적: 166억 유로 상회

- 자동차 부품산업은 유럽 내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타이어, 좌석, 실내장식, 전자제품, 전선 및 브레이크 시스템 및 엔진 등에 Bosch, Valeo, Faurecia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폴란드의 승용차 생산대수는 1994년 34만대, 1999년 65만대로 급증하였으나, 2002년에는 29만대 수준으로 급감함. 2003년 이후에는 자동차 생산대수가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ISI Emerging Markets의 자회사인 IntelliNews에 따르면, 2007년 승용차 및 경상용차의 총생산실적은 78만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폴란드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차종별 생산 실적은 승용차 69만 5천 대(전년 대비 9.9% 증가), 트럭·트랙터 8만 6,100대(12.7% 증가), 버스 3,600대(41.9% 감소)를 기록함.

&lt;표 II-9&gt; 연도별 자동차 생산대수 추이

(단위: 천 대)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수	증감률
승용차	338	523	540	632	695	9.9
트럭·트랙터	18.5	59.0	67.7	76.4	86.1	12.7
버스	1.8	4.2	5.4	6.2	3.6	-41.9
계	358.3	585.7	613.2	714.9	784.6	9.7

자료: 폴란드 자동차공업협회.

-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자동차 생산규모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1,970만 대에 달하며, 국가별로는 독일 621만 대, 프랑스 302만 대, 스페인 289만 대,

영국 175만 대, 이탈리아 128만 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폴란드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체코(94만 대)에 이어 제2위(78만 대, EU의 4.0%)의 생산실적을 기록함.

- Global Insight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실적은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944,744대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813,040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8년 기준으로 차종별 생산실적은 승용차 818,791대, 경상용차 112,572대 등으로 나타남.
- 2008년 자동차 생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현재 Panda, Seicento를 제조하고 있는 Fiat Auto Poland(FAP)가 2007년부터 신모델인 “Fiat 500”을 양산하면서 그 생산량이 2007년 65,000대에서 2008년에는 190,000대에 달한 데 기인함.
- 자동차 제조업체별 생산실적(2008년 기준)을 살펴보면, 승용차 부문에서는 Fiat 454,294대(전년 대비 32.6% 증가, 폴란드 생산의 53.1% 점유), Opel 171,551대(8.3% 증가, 19.9% 점유), Volkswagen 83,452대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경상용차 부문에서는 Volkswagen(93,027대) 및 Fiat(19,545대)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lt;표 II-10&gt; 주요 자동차 메이커 생산현황

제조업체	제조공장	생산모델	생산량	최근 동향
Fiat	Tychy	Panda, Seicento, Fiat 500	454,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at Automobile Poland(FAP)는 이탈리아 및 남미를 제외한 최대 자동차조립공장(폴란드 최대)</li> <li>- 연간 생산능력: 60만대</li> <li>• Ford와 제휴하여 Ford Ka를 대체하는 신모델 생산(2008.9)</li> </ul>
Opel	Gliwice	Astra, Zafira	171,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 Astra III 생산시작(2007.8)</li> <li>- Astra III는 2007년 이스탄불 모터쇼에서 출시되어 중동부유럽 시장 타켓(2007년 3만대 생산)</li> <li>- 근로자(3천명) 교대조 및 작업장 감축계획 발표(2009.3)</li> </ul>
Volkswagen	Poznan	Caddy III, T5	176,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5모델 생산은 독일 Hanover공장으로 이전 계획</li> <li>• Caddy III 모델의 독점적 유럽생산기지(포츠난)</li> <li>• VW는 폴란드 내 경상용차 생산에 치중하며 SPV 생산을 위한 포츠난공장의 증설계획</li> </ul>
FSO	Warsaw	Matiz Lanos, Aveo	46,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evrolet Aveo(=Kalos) 생산 시작(2007.11)</li> <li>- 연간 생산능력: 15만대</li> <li>• AvtoZAZ(우크라이나) 공장현대화를 위해 1.3억 달러 투자계획</li> </ul>

주: 생산량은 2008년 기준(단위: 대).

자료: Global Insight Report: Poland (Automotive), May 25, 2009.

- FSO 바르샤바 자동차 제조업체는 우크라이나 생산공장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한 Lanos 모델을 양산하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에는 그 후속모델인 Chevrolet Aveo를 출시함(연간 생산: 102,464대).

- 자동차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폴란드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Fiat의 Tychy 자동차공장에서는 Fiat 500, Panda 등의 모델을 생산하였고, Opel의 Gliwice 자동차공장에서는 Agila를 대체하는 Astra III Saloon 모델을 생산하고 있음.
- Opel과 유사한 수준의 자동차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Volkswagen의 Poznan 자동차공장은 승용차보다는 Caddy, Transporter T5와 같은 다목적 소형차(LUV)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 자동차 매출현황

- 폴란드는 1990년대 중동부유럽 최대 자동차시장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고금리, 특별소비세 부과, 연료가격 상승 및 중고차 대중화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하면서 2001년부터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 2000년 이후 신차 매출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은 EU 가입 이후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세율 인상 등 급격한 조세 개정이 자동차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한 데 기인함.
- 실제로 EU 가입이후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로 중고차 모델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2005-06년 중 서유럽의 중고차가 폴란드산 신규자동차를 대체하게 되었고 EU 역내 국가간 조세부과 및 가격조절정책에 따른 자동차 판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소비가 위축됨.

- 다만, 2003년에는 폴란드 정부의 신규 자동차 판매세 인하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및 EU 가입이후의 자동차가격 상승 기대로 신규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신규 승용차의 매출은 2001년 이후 전반적인 하향추세를 보이면서 2005년에는 전년 대비 26%나 감소(지난 14년간 최저 수준)하다가 200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Global Insight에 따르면, 자동차 매출실적은 2007년 372,278대로 전년 대비 26.2%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401,232대로 전년에 비해 7.8%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09년에는 348,740대로 매출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차종별 매출실적을 비교하면, 2008년 기준으로 승용차 320,040대, 경상용차 61,291대 등으로 나타남.

&lt;표 II-11&gt; 연도별 자동차 매출실적 추이

(단위: 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f
승용차	318,111	235,522	238,993	293,305	320,040	285,410
경상용차	37,212	36,218	41,360	56,369	61,291	51,605
기타	11,574	10,845	14,655	22,604	19,901	11,725
계	366,897	282,585	295,008	372,278	401,232	348,740

자료: Global Insight Report: Poland (Automotive), May 25, 2009.

- 폴란드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07년 자동차 매출은 330억 즈워티로서 GDP의 2.8% 수준이며, 2000-06년 중 자동차 제조업의 FDI 유입금액은 125억 즈워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EU 회원국의 자동차 매출실적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872만 대이고 국가별로는 독일 348만 대, 영국 280만 대, 이탈리아 277만 대, 프랑스 258만 대, 스페인 194만 대 등으로 나타나 생산실적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2007년 기준 중동부유럽에서 자동차 매출실적이 가장 많은 국가로는 폴란드 37만 대(EU의 2.0%), 루마니아 36만 대, 체코 21만 대, 헝가리 19만 대 등의 순으로 파악되며, 헝가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의 매출실적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폴란드의 신차(승용차 기준) 매출실적을 주변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007년 기준으로 폴란드는 29만 3천대로 루마니아의 31만 5천대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체코 17만 4천대, 헝가리 17만 2천대, 슬로베니아 6만 9천대, 슬로바키아 6만대에 비해서는 월등한 수준임.
- 2008년 1-6월 중 자동차(신차)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승용차 168,800대(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 3.5톤 이하 경상용차 29,100대(25% 증가), 3.5톤 초과 상용차 14,500대(18.4% 증가), 16톤 초과 상용차 11,100대(11.3% 증가) 등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준으로 소형 콤팩트 모델의 내수판매 실적이 두드러졌는데, 최상위 판매실적을 나타낸 차종은 Skoda(체코) Fabia(17,000대), Skoda Octavia(12,500대), Toyota Yaris(12,000대), Ford Focus(10,000대), Fiat Panda(9,000대) 등으로 조사됨.

- 2008년 중 자동차(신차)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승용차 319,922대 (전년 동기 대비 +9.4%), 3.5톤 초과 상용차 22,726대(-7.6%), 3.5톤 이하 상용차 58,178대(+8.9%) 등으로 나타남.
- 2008-09년 승용차 매출 대수는 2007년의 29만 2,376대에서 2008년에는 31만 9,922대로 9.4% 증가하였으며, 2009년 1-4월에는 11만 6,676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 증가하는데 그쳤음. 2008년 기준 자동차 업체별로는 Toyota(10.9%), Skoda(10.3%), Fiat(9.1%), Opel, Volkswagen 등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가 각각 11위, 12위를 기록함.
- 2008년 1-9월 기준 신차의 차종별 매출(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Opel Astra(11,284대), Skoda Fabia(10,832대), Skoda Octavia(10,072대), Toyota Yaris(8,941대), Ford Focus(8,820대), Fiat Punto(5,799대) 등으로 나타남.



<표 II-12> 자동차 제조업체별 승용차의 매출실적 순위 비교  
(2008년 기준)

(단위: 대, %)

자동차 제조업체	2006	2007	2008	2009.1-4
1 Toyota	27,883	33,848	34,855	10,612
2 Skoda	28,783	32,965	32,887	13,075
3 Fiat	24,283	27,817	29,232	12,377
4 Opel	24,942	26,772	27,940	9,057
5 Volkswagen	15,135	20,468	23,704	9,650
6 Ford	17,712	21,558	23,211	8,595
7 Renault	15,450	16,208	19,466	6,491
8 Peugeot	14,934	18,694	16,718	4,672
9 Honda	9,911	13,025	14,715	4,450
10 Citroen	12,028	13,674	13,777	3,715
11 Kia	4,104	8,359	11,356	5,392
12 Hyundai	2,491	4,916	10,072	4,473
13 Nissan	7,198	7,581	7,909	2,779
14 Suzuki	4,019	7,120	7,801	3,420
15 SEAT	4,693	8,004	7,003	2,365
16 Chevrolet	4,346	5,201	5,899	2,932
17 Mercedes	2,944	3,661	4,342	1,403
18 Audi	2,754	3,523	4,313	1,305
19 BMW	1,983	3,258	4,018	1,295
20 Volvo	2,666	3,567	3,987	1,527
계(기타 포함)		292,376	319,922	116,676

자료: Samar 및 www.pzpm.org.pl.

□ 자동차 수출실적

- 폴란드 수출실적에서 자동차 제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8년 기준으로 자동차 수출실적은 181억 유로(수출총액의 20%)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2007년 기준으로 폴란드내 생산된 승용차의 97.3%는 수출(FSO는 99%)되고 내수 판매물량은 2.7%에 불과하며, 상용차(밴) 경우에 내수시장의 판매비중이 95%인 Intrall Polska, 수출비중이 98%인 VW Poznan 등 평균 95%는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
- 생산된 자동차의 수출비중은 수량기준으로 2001년 66%에서 2003년 85%로 급증하던니 2006년 기준으로는 96%에 달하였으며 2007년에는 87.6%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07년 자동차 수출실적의 업체별 순위를 살펴보면, Fiat Auto Poland(98.7억 즈위티), Volkswagen Poznan(75.7억 즈위티), Volkswagen Motor Polska(35.1억 즈위티), Fiat-GM Powertrain Polska(32.6억 즈위티), Delphi Poland(30.0억 즈위티) 등임.
- 폴란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자동차 부품수출은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폴란드 자동차 관련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은 독일 및 이탈리아로서 이들 2개국은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함.
- Eurostat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폴란드의 주요 자동차 수출 대상국으로는 독일(수출금액: 34.4억 유로, 21.9%), 이탈리아(27.9억 유로, 17.7%), 영국(9.7억 유로), 프랑스(9.5억 유로), 러시아(8.8억 유로), 우크라이나(6.4억 유로), 스페인(5.6억 유로), 헝가리(5.5억 유로), 체코(5.2억 유로), 벨기에(5.0억 유로) 등임.
- Delphi, TRW, Bosch, Valeo, Faurecia 및 Haering 등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폴란드에 대거 진출하였으며, Michelin(Olsztyn), GoodYear(Debica), Bridgestone(Poznan) 등 3대 타이어 제조업체도 진출하여 2007년 타이어 생산실적이 12억 유로에 달하였음.

### 나. 화학 산업(Chemical Industry)

<그림 II-3> 폴란드 화학 산업의 기본개황  
(2007-08년 기준)

총 부가가치: GDP의 4.1% (기초화학 기준)	생산실적: 920억 즈워티 (총산업의 10.8%, EU 10위 수준)
고용인구: 23.5만 명 (제조업의 10.7%)	매출실적: 886억 즈워티 (제조업의 8.2%)
화학산업 등록기업: 1,947개 업체	수출실적: 1억 유로

#### □ 화학산업 개황

○ 폴란드 화학산업은 크게 기초화학, 고무-플라스틱제품 및 제약 산업 등으로 구분됨. 유럽에서는 화학산업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으며, EU 회원국이 세계 전체에서 미국, 일본을 능가하는 최대 화학제품 생산국임.<sup>16)</sup>

- 폴란드 화학산업 등록기업(2006년 기준): 1,947개 업체
- 업종별 등록업체: 기초화학 455개 업체,  
고무-플라스틱 1,492개 업체

16) 유럽 전체적으로는 31,000개 화학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종업원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임.

- 폴란드 통계청(GUS)에 따르면, GDP 대비 화학산업의 생산실적(판매 기준)은 2007년에는 기초화학 4.2%, 고무플라스틱 3.8%이었으나 2008년 1-9월에는 각각 4.1%, 3.5%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됨.
- 화학산업의 생산실적을 비교하면, 기초화학 분야는 2007년 493억 즈워티에서 2008년 494억 즈워티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동 기간 중 고무플라스틱 분야는 447억 즈워티에서 426억 즈워티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폴란드 전체 공업(광업, 유틸리티 포함) 중 판매량 기준으로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이고 고용인원은 23만 명에 달하는데, 이중 고무플라스틱 산업 종사자가 58%로 여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됨.
- 2007년 기준으로 화학산업의 월평균 급여총액은 3,671즈워티로 전년보다는 172즈워티 증가하였고 고무플라스틱 분야 종사자는 기초화학 분야보다는 적은 2,640즈워티의 급여를 받고 있음.

<표 II-13> 2005-07년 화학산업의 평균 고용인력 추이

(단위: 명)

업종(분야) 구분	2005	2006	2007
기 초 화 학	26,000	26,000	28,100
도료(페인트·니스)	5,100	5,500	5,700
제 약	22,600	23,400	23,700
세제(화장품 등)	20,600	21,800	19,100
고 무 · 플 라 스틱	115,800	124,300	136,600
기 타	10,200	11,900	11,000
계	212,200	222,600	235,000

자료: Polish Chamber of Chemical Industry, 2008.9.

- 폴란드 정부는 EU 가입으로 기후변화(Climat Change),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 생물연료(bio-fuel) 등에 관한 환경규제(regulations)가 1990년대 90종에서 1,000종 이상으로 급증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수반되면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화학산업의 정책방향은 WTO, EU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여 비교적 개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수급현황을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생산 및 투자)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 소비자화학제품과 제약부문을 제외하면 화학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며,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화학제품(플라스틱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화학산업은 대규모 에너지 소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폴란드는 에너지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가스의 경우 국내 소비에 대한 자국내 생산비율은 30%에 불과함.
- 다만, 화학산업 관련 전공자 및 기술자가 최근 여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당국의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 미흡한 점도 화학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과제 또는 부담이 되고 있음.

## □ 화학산업 생산 및 매출 현황

- 폴란드 화학상공회의소(Polish Chamber of Chemical Industry)에 따르면, 2007년 화학산업(고무플라스틱 포함)의 생산실적은 900억 5,440만 즈위티(산업 전체의 10.8%)로 전년에 비해 9.5% 증가하였으며, 2007년 기준 화학산업의 생산실적은 EU 회원국 중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이들 상위 4개국은 EU의 68% 차지),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에 이어 제10위를 기록함.

&lt;표 II-14&gt; 화학 산업 주요 제품의 생산실적 추이

(단위: 천 톤)

제품 구분	2005	2006	2007
에틸렌	313.0	593.9	611.0
프로필렌	249.0	413.0	404.0
페놀	43.5	44.5	49.7
질산	2,245.0	2,235.0	2,306.0
합성 암모니아	2,519.0	2,434.0	2,461.0
니트로젠	1,726.0	1,707.0	1,818.0
폴리에틸렌	152.0	369.0	393.0
폴리프로필렌	148.0	324.0	256.0
도료	837.0	877.0	1,003.0

자료: Polish Chamber of Chemical Industry, 2008.9.

- 2007년 화학산업의 생산실적을 업종별로 세분하면, 전년 대비 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화학섬유 등의 제품생산은 감소하였으나, 생산실적이 증가한 분야는 도료(페인트, 니스), 페놀, 비누, 비료, 살충제 등의 제품이며, 특히 농업부문의 수요증가로 비료 및 농작물 보호제품의 생산은 현저함.

<표 II-15> 연도별 폴란드 화학산업의 생산실적 추이

(단위: 백만 즈워티)

	2003	2004	2005	2006	2007
산업 전체	564,622.0	678,521.0	715,588.0	784,721.1	835,014.1
화학 산업	62,879.0	72,641.0	77,600.0	82,225.9	90,054.4
화학제품	35,584.0	40,989.0	43,062.0	48,349.8	48,605.4
고무플라스틱	27,295.0	31,625.0	34,538.0	35,876.1	41,449.0

자료: GUS.

○ 또한, 화학 산업의 2007년 매출실적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886억 9,980만 즈워티를 기록하여 제조업 매출실적의 8.2%를 차지함. 주요 업체별로는 BORYSZW를 제외하고는 전년대비 매출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CIECH, SYNTHOS 및 ANWIL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 매출 증가요인: 화학제품 생산 및 고무플라스틱 제품 매출 급증

<표 II-16> 폴란드 주요 화학업체의 매출실적 현황

(2007년 기준)

(단위: 백만 즈워티, %)

업체명	주요 업종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BORYSZW	세제, 산화물 및 섬유	4,819.3	△10.4
CIECH	화학지주회사	3,418.7	57.2
UNILEVER Polska	세제 및 식품	3,249.2	15.0
BASELL ORLEN	polyolefins	3,161.1	18.7
ANWIL	PVC, 질소비료	2,824.7	42.7
GSK	제약	2,685.4	20.1
ZA PULAWY	질소비료	2,205.3	8.6
SYNTHOS	합성고무	1,841.0	57.0
ZCh POLICE	비료	1,821.6	9.0

자료: GUS, ISI IntelliNews: Polish Chemical Report, Sep. 2008.

-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비료산업에 대한 계절적 수요위축, 화학제품의 가격급락, 기업의 신용경색, 자국 통화가치 불안 및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ZA Tarnow, ZA Kedzierzyn, ZA Pulawy, ZCh Police, Anwil 등 폴란드의 주요 화학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 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Nafta Polska는 ZA Tarnow-Moscice, Kedzierzyn 및 Ciech를 2009년 하반기에 민영화할 계획이며, 폴란드 최대 원유 유통 및 판매(Downstream)법인인 PKN Orlen도 자회사인 Anwil 매각도 추진하고 있음.
- 폴란드 화학산업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EU 회원국이며, 합성고무, 세제, 미용제품, 비료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품수지 적자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화학제품의 대 EU 교역비중: 수출 69.0%, 수입 76.7%
- 2007년 화학제품의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억 110만 유로, 수입은 전년에 비해 17.8% 늘어난 1억 1,880만 유로를 각각 기록함으로써 화학산업 자체만으로는 1,770만 유로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07년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입 및 내수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상품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품 수요(내수) 대비 생산, 즉 내수충족률은 에틸렌 및 톨루엔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편이므로 수요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함.



<표 II-17>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현황 비교  
(2007년 기준)

(단위: 톤, %)

	생산	수입	수출	상품수지	수요(내수)	내수충족률
에틸렌	611,000	-	2,910	2,910	608,094	100
프로필렌	404,000	161,657	187	-161,470	565,470	71
부타디엔	59,300	21,421	4,544	-16,878	76,178	78
톨루엔	137,000	8,547	115,762	107,220	29,779	460
산성제품	6,500	19,898	4,562	-15,336	21,836	30
폴리에틸렌	393,000	597,839	239,627	-358,212	751,212	52
폴리프로필렌	256,000	187,917	124,883	-63,034	319,034	80
폴리에스테르	63,900	157,570	9,439	-148,131	212,031	30
P C V	303,000	329,210	108,829	-220,381	523,381	58

자료: Polish Chamber of Chemical Industry, 2008.9.

- 폴란드 중앙은행(NBP)에 따르면, 화학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2006년 기준으로 10억 8,530만 즈위티이며, 이중 기초화학(제약산업 포함)에 대한 투자유입액은 5억 2,380만 즈위티(48.3%), 고무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FDI 유입액은 5억 6,150만 즈위티(51.7%)로 나타남.

<표 II-18>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리스트현황

기초화학(제약산업 포함)		고무플라스틱 산업	
투자기업	소속국가	투자기업	소속국가
GlaxoSmithKline	영국	Campagne FM	프랑스
Marga	네덜란드	Bridgestone	일본
IVAX	미국	Goodyear Luxembourg	미국
Pliva	크로아티아	Alstom	프랑스
British Oxygen	영국	Huhtamaki Van Leer	핀란드
Procter & Gamble Mexico	미국	Veka	독일
Basell Europe	네덜란드	Nordisk Wavin	네덜란드
Henkel CEE	오스트리아	M. J. Maillis	그리스
Linde	독일	Hutchinson	프랑스
Petro Carbo Chem	독일	Frankische Plastiks	독일

자료: PAIIZ.

## 다. 전자통신 산업(Electronic & Telecom Industry)

### □ 전자제품 산업의 생산현황

<그림 II-4> 폴란드 전자제품 산업의 기본개황  
(2007-08년 기준)

총 부가가치: GDP의 1.6%	생산실적: 44억 즈워티 (총산업의 2.2%)
고용인구: 3.5만 명	내수시장 규모: 73억 즈워티
전자산업 제조기업: 7,329개 업체	수출실적: 50.8억 유로

#### ○ 생산실적 및 고용인력 추이

- 폴란드 투자청(PAIIZ)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폴란드 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7,329개이고 이중 외국인투자기업은 32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폴란드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Thomson Tubes, Display S.A., Royal Philips Electronics N.V., France Telecom, Alcatel-Lucent, Vivendi Universal, Siemens AG, Sharp, LG Philips LCD, Flextronics International 등임.

- 폴란드 전자통신상공회의소(Polish Chamber of Commerce fo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KIGEIT)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전자제품 산업의 생산실적(판매기준)은 44억 유로로 추정되며, 업종별 생산비중은 가전제품 65%, 통신부품·설비 19%, 전자부품 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7% 등으로 나타남.

※ 전자제품 산업의 생산비중: GDP의 1.6%, 산업 생산량 전체의 2.2%

- 전자제품 산업의 생산실적은 2004년 28억 8,080만 유로에서 2005년 31억 3,190만 유로, 2006년 42억 110만 유로, 2007년 43억 6,350만 유로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시현함.
- 2004-07년 중 전자제품 산업의 고용 인력은 2004년 24,100명, 2005년 25,400명, 2006년 29,900명, 2007년 34,600명으로 또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자제품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14만 유로(연간 기준)

#### ○ TV Sets 생산 및 내수시장 추이

- 폴란드 전자통신상공회의소에 따르면, TV Sets 생산은 2004년 7,012,000대, 2005년 6,733,000대, 2006년 9,427,000대, 2007년 20,240,000대로 2006년 이후 급증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LCD 및 Plasma 생산이 주종을 차지하고 생산제품의 95%는 수출됨.
- 동 기간 중 TV Sets 내수시장 규모는 2004년 1,259,000대, 2005년 1,381,000대, 2006년 1,429,000대, 2007년 1,459,000대로 저조하여 아직 TV Sets에 대한 내수가 크지 않음을 반영함.

#### □ 전자제품 산업 내수시장 구조

- 전자제품 산업의 전체 내수시장 규모(수입 포함)는 73억 유로로 추정되며, 제품분야별 내수비중은 통신부품설비 34%, 컴퓨터·사무용기기 28%, 전자부품 21%, 가전제품 17%로 조사됨.
- 이는 자체 생산비중이 낮으나 폴란드 내수시장이 제품별로 다양한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는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부품에 대

한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됨.

<표 II-19> 제품분야별 생산 및 내수 비중 비교  
(2007년 기준)

(단위:%)

제품 구분	생산비중	내수비중
가전제품	65	17
통신 부품설비	19	34
전자부품	9	2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7	28

자료: 폴란드 전자통신상공회의소, 2008.9.

#### □ 전자제품 산업의 수출입시장 구조

- 폴란드 전자제품 산업의 수출실적은 2007년 50억 7,790만 유로 (전년 대비 44.4% 증가)인데, 제품분야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가전 제품 55.9%, 전자부품 21.2%, 통신부품·설비 11.6%의 순으로 나타남.
- 전자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네덜란드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제품별 주요 수출업체로는 TV Sets 분야에서는 LG전자, Thomson 및 Jabil, TV 튜브 분야에서는 Videocon, LCD모듈 분야에서는 Sharp, LG Philips LCD, Toshiba 및 Funai Electric 등임.
- 폴란드 전자제품 산업의 수입시장 규모는 2007년 90억 7,510만 유로로 전년에 비해 11.5% 증가에 그쳤는데, 제품별 수입시장 점유율은 통신부품·설비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표 II-20>에서와

같이 여타 3개 분야의 제품비중도 유사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 폴란드 전자제품 산업의 주요 수입상대국으로는 독일을 제외하고 중국, 한국, 대만 및 일본 등 극동아시아 지역이 차지하고 있음.
- 폴란드 전자제품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지난 15년간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제품별 주요 외국인투자 기업을 살펴보면, TV Sets 및 튜브 분야에서는 LG전자, Thomson, Philips 및 Jabil, 전자기기 및 부품 분야에서는 Philips, LCD 모듈 분야에서는 Sharp, LG Philips LCD 및 Toshiba,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France Telecom 및 Vivendi Universal, 통신부품 분야에서는 Alcatel-Lucent 및 Siemens 등임.

<표 II-20> 제품분야별 수출 및 수입 비중 비교  
(2007년 기준)

(단위:%)

제품분야 구분	수출비중	수입비중
가전제품	55.9	24.8
통신 부품설비	11.6	27.4
전자부품	21.2	24.7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5.0	23.1

자료: 폴란드 투자청(PAIIIZ).

□ 전자제품 산업 분야 주요 외국기업 진출현황

- 폴란드 가전제품 분야의 주요 업체(Main Players)를 살펴보면, 생산부문에서는 Jabil(Philips), LG, Daewoo, TCL(Thomson), Toshiba, Orion, Sharp, TPV, Funai, Humax, JVC, Pronox 등이 진출해 있

고, 내수시장에서는 Philips, LG, Panasonic, Samsung, Sony, Thomsom 등이 매출규모를 주도하고 있음.

- 가전분야: Whirlpool(미국), Electrolux(스웨덴), Indesit(이탈리아) 등
- 오디오·비디오 분야: 삼성전자, LG전자, Philips, NEC-Mitsubishi

#### ○ TV 산업 진출사례

- 샤프, 도시바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대만 판넬 업체도 최근 진출하여 폴란드 TV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사례는 많은 편임.
- 우리나라 전자기업의 폴란드 진출사례는 LG전자(TV, 판넬 생산) 및 휴맥스(셋톱박스 생산) 등이 있으나 협력업체들의 진출사례는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많지 않은 편임.
- ※ 우리기업의 폴란드 TV 시장점유율은 유럽 전체의 시장점유율과 비슷한 5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임.

#### □ 통신 산업의 시장상황

- 폴란드 정보통신(ICT)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193억 유로(전년 대비 8.4% 증가)이며, 이중 통신 부품 및 네트워크서비스 등 통신 산업의 시장규모는 108억 유로(전체의 56% 차지)이고 소프트웨어, IT 부품 및 서비스 등 IT 산업의 시장규모는 85억 유로(전체의 44%)로 집계됨.
- 폴란드 정보통신 산업의 시장규모는 EU 회원국 중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네덜란드에 이어 제7위이며 중동부유럽 지역에서는 최대임.

- 폴란드 통신 산업은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7년 기준으로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휴대폰서비스 51%, 통신 부품 25%, 유선전화서비스 18%, 인터넷접속서비스 6%로 나타남.
- 통신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자는 Telekomunikacja Polska, Polkomtel, PTK Centertel, Cyfrowa 등임.

<표 II-21> 폴란드 주요 통신업체의 매출실적 비교

(단위: 백만 즈워티)

업체명	통신분야	2007	2008.1-9
TPSA	유선전화, 휴대폰	18,244	13,586
PTK Centertel	휴대폰	8,060	6,443
Polkomtel	휴대폰	7,799	6,290
PTC	휴대폰	7,426	5,901
ENEA Operator	유선전화	1,155	..
CYFRA Plus	디지털 TV	899	..
Netia	유선전화	838	752
Cyfrowy Polsat	디지털 TV	787	291
UPC Polska	케이블 TV, 인터넷	628	..
Exatel	유선전화	523	..

자료: ISI IntelliNews: Polish Telecom Report, Jan. 2009.

- 2007년 기준으로 유선전화 서비스 및 네트워크 시장에서 운영업체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면, TP 77.8%, Netia 6.9%, Tele2 4.4%, Telefonía Dialog 3.8% 등으로 나타남.
- 폴란드 통신 부품 및 장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 기업으로는 Siemens, Ericsson, Alcatel, Lucent Technologies, Motorola 등이며 통신서비스 산업에도 France Telecom, Bate Telecom, Vodafone,

TDC Mobile 등의 외국 기업들이 투자함.

- 폴란드 통신 부품·장치 산업 자국내 제조업체로는 Zaklad Produkcji Automatyki Sieciowej, Radmor, VECTOR, DGT, FCA, Optomer, Platan, Slican 등임.
- 통신부품 및 장치는 주로 중국, 핀란드 및 일본 등에서 수입함

#### □ 통신인프라 현황

- 폴란드의 통신 인프라는 휴대폰을 중심으로 1989년부터 급속히 개선되었지만 낙후지역의 지상통신 네트워크 발전과정은 지연됨. 또한, 199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IT 지출의 60% 이상이 컴퓨터 장비 부문에 투입되었으나 하드웨어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유선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통신서비스의 시장경쟁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고성능의 광역 인터넷서비스의 성장이 지연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점차 경쟁체제가 나타나고 있음.
- 과거 유선 통신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한 정부소유 공기업이었던 Telekomunikacja Polska(TPSA)는 2006년 유선통신부문의 지분을 83% 보유하였으나 신규 사업부문에서는 Tele2, Netia 및 Dialog 등과의 경쟁으로 사업영역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들 경쟁기업 등 으로부터 독점적 사업영역에 대한 개방 압력도 받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TPSA의 민영화를 1998년 말부터 시작하여 15%의



- 정부 지분을 개인, 기관 및 국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한 데 이어 France Telecom-Kulczyk Holding에 대해 2000년 지분의 35%, 2001년 12.5%를 추가 매각하여 France Telecom은 4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폴란드 전자통신청(UKE)에 따르면, 유선 통신시장은 아직도 TPSA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2007년 기준으로 통신 운용업체별 시장점유율은 TPSA 78%, Netia 7%(Tele2(4.4%) 인수후 상승) 등으로 조사됨.
  - 2003년 인구 백명당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45명이었으나,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며 2007년 109명을 기록하였음. 현재 폴란드 전 지역에서 무선전화 사용이 가능한 상태임.
  - 900MHz GSM<sup>17)</sup>, 1800MHz GSM 및 UMTS<sup>18)</sup> 기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3G 서비스 사업자는 2001년까지 모두 결정되었고 보급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휴대폰 시장은 3대 업체를 중심으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2007년 말 가입자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PTK Centertel 34.2%, Polkomtel 32.5%, PTC 31.1%로 매년 다르게 나타남. 제4위 휴대폰 사업자인 P4(시장점유율 2.1%)가 2006년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하면서 “Play”라는 브랜드를 출시함.
  - PTK Centertel은 Orange(구 Idea)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17)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CDMA 방식과 대응되는 이동통신 방식

18) 유럽의 3세대 이동통신(3G) 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W-CDMA를 기술표준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술

- TPSA 및 France Telecom의 합작법인임. Deutsche Telekom이 소유하고 있는 Polska Telefonia Cyfrowa(PTC)는 Era 및 Heyah 브랜드, Polkomteldms Plus-GSM 브랜드를 각각 운영·관리하며 2009년 중 무선브로드밴드를 GSM 네트워크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임.
- 2006년 기준으로 인구의 88%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휴대폰 소유자도 11%인 것으로 조사됨. 휴대폰 사용인구가 100명 기준으로 2003년 45명에서 2007년 109명(EU 평균: 111.8%)으로 급상승함.

<표 II-22> 유선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보급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천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선전화 가입자수	11,444	10,396	9,841	9,523	9,194
(전년대비 증가율)	(-3.0)	(-9.2)	(-5.3)	(-3.2)	(-3.5)
유선전화 보급비율	30.0	27.3	25.9	25.1	24.2
휴대폰 가입자수	36,758	41,511	44,368	46,489	47,981
(전년대비 증가율)	(25.7)	(12.9)	(6.9)	(4.8)	(3.2)
휴대폰 보급비율	96.4	109.0	116.6	122.3	126.4
인터넷 사용자수	14,085	16,000	17,477	18,586	19,372
(전년대비 증가율)	(12.2)	(13.6)	(9.2)	(6.3)	(4.2)
인터넷 보급비율	36.9	42.0	45.9	48.9	51.0

자료: Global Insight, ITU.

- 한편, 인터넷 사용비율은 아직 EU 회원국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urostat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일주일 단위로 1회 이상의 인터넷사용 인구비중이 30%(EU 평균: 42%)로 조사됨. 또한, 초고속인터넷(broad

- band) 사용자수는 2008년 9월 말 기준 385만 명(보급비율: 10.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2007년 말 기준으로 폴란드 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Provider는 TP (시장점유율 58.6%), Netia, Telefonía Dialog, GTS Energis 등이며 가장 인기 있는 접속방법, 포털서비스는 각각 EDGE 및 Google로 조사됨.
  - 상대적으로 비싼 전화요금과 컴퓨터 장비사용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확대에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전자통신부문 매출시장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llegro(경매사이트)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생산업자가 인터넷 기반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B2B(Business-to-Business) 시장도 아직 초보단계이지만 화학 및 철강 제품 등 일부 분야에 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라. 건설업(Construction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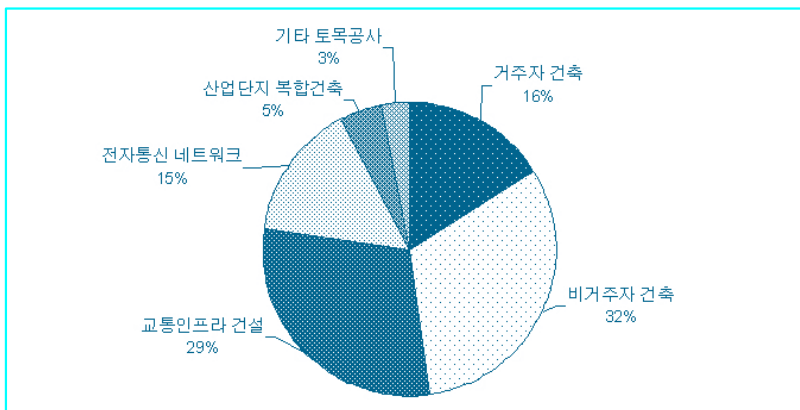
<그림 II-5> 폴란드 건설업의 기본개황  
(2007-08년 기준)

총 부가가치: 892억 즈위터 (GDP의 7.0%)	시장규모: 1,270억 즈위터
고용인구: 54.9만 명	외국인투자 유입금액: 24억 유로

## □ 건설업 개황

- 건설업은 최근 몇 년간 폴란드 내 가장 급성장한 산업으로서 2007년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15.4%를 기록하였으며 건설업 시장규모는 1,270억 즈워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07년 기준으로 폴란드 건설업의 시장규모를 프로젝트 유형별로 구분하면, 비거주자 건축 31.7%, 교통인프라 건설 29.3%, 거주자 건축 16.1%, 전자통신 네트워크 설치 15.0%, 산업단지 내 복합건축 4.9%, 기타 토목공사 3.0% 등으로 분류됨.

&lt;그림 II-6&gt; 프로젝트 유형별 건설업 시장규모 비중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 건설업 부가가치 총액의 대 GDP 비중은 1995년 5.2%에서 1999년 7.7%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는 4.8%를 기록하였고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 기준으로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GEIC/GUS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건설업 부가가치 총액은 891.5억 즈워티로서 전년의 751.9억 즈워티에 비해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 주택개발업자협회(PZFD)에 따르면, 주택건설의 경우 2008년에는 166,000채를 건축하여 전년 대비 2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130,000-150,000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도로건설을 주관하는 폴란드 국가도로관리국(GDDKiA)에 따르면, 2006-08년 EU 기금을 통한 협조융자로 총 25개 사업(110억 즈워티 규모)이 추진되었고 2009년에는 1,000km 이상의 도로건설에 총 53개 사업이 시행될 계획임.
- 건설업의 고용효과도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 이전에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2004년 이후 건설시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건설시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45만 3천명에서 2007년에는 54만 9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건설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7년 2,652즈워티에서 2008년 3분기에는 3,213즈워티로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 격차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08년 3분기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공공부문 3,003즈워티, 민간부문 3,222즈워티 수준으로 파악됨.

## □ 건설부문 투자현황

- 폴란드의 주요 건설업체로는 Polimex-Mostostal, Grupa Skanska, Budimex 등이며, 대부분 바르샤바에 본사를 두고 있음.

<표 II-23> 폴란드 주요 건설업체 현황

(단위: 백만 즈워티, 명)

기업체	본사	연간 매출액	고용인원
Polimex-Mostostal	바르샤바	3,702	10,400
Grupa Skanska	바르샤바	3,227	6,413
Budimex	바르샤바	3,076	5,396
Budimex Dromex	바르샤바	2,443	3,202
Warbud	바르샤바	1,629	1,180
PBG	Przezmierowo	1,377	..
Kopex	Katowice	1,315	2,906
Hochtief Polska	바르샤바	1,149	783

자료: PAIIZ.

- 2007년 말 기준으로 폴란드내 외국인간접투자에서 건설부문에 대한 비중은 20%를 차지하면서 폴란드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누계기준)은 114억 유로에 달함.
- 2007년 연중 폴란드 건설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은 24억 유로이며, 주요 투자국가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폴란드 건설부문도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파악됨.
- 폴란드 건설업체 중에서 외국기업의 비중은 37% 수준인데, 최근 그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대규모 해외건설 수주프로젝트

에서 독일 기업이 참여한 비율은 60%에 달함. 2008년 9월 기준으로 건설프로젝트부문에서 수주가 많은 국가로는 독일(40%), 우크라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임.

- 폴란드 가스유통 운영업체인 Gaz-System은 2014년까지 987km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50억 즈워티(10.8억 유로 상당)를 투자할 계획임. 이와는 별도로 Gaz-System은 LNG 가스터미널 공사(5억 유로, Polskie LNG)와 발트해연안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공사(4억 유로, Baltic Pipe)를 추진하고 있음.
- 발전소 건설분야에서는 폴란드내 재생에너지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RWE 그룹이 풍력발전소(730 MW) 건설 등에 2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폴란드 최대 에너지업체인 PGE도 3,000 MW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2기의 건설(180억 유로 추정)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2-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는데, 제1기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동하고 제2기 발전소는 2-3년 이후에 가동할 것을 목표로 추진됨.